



새 학년 새 출발 교육을 잘하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3월은 3·1절 103주년 기념행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입학이 지나고 새봄이 시작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의 달이다.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교육부 대책은 새 학년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다 했다. 따라서 2022학년도 새 학년 새 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새 학년은 새로 입학한 1학년과 진급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직원도 인사 발령에 의해 전 입한 교직원도 있으며, 학교 시설도 겨울방학 동안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제 입학한 학생들이나 입학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은 새 학교 새로운 교육에 대한 새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였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교권을 가진 부모와 교권을 위임받은 교사가 자녀와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제공하며 가르치고 도와주는 활동이다. 교육에 성공하려면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는데 자녀와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와 교사들의 할 일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한다.

새 학년 교육을 시작하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은 가르치는 교사나 부모와 공부할 하게 되는 학생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희망과 꿈을 품고 시작되고 있다. 지난 학년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점을 가지고 보람찬 공부를 하겠다는 것과 학교에서도 새로운 교육계획에 의해 더욱 비전 있는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마음이 새로운 마음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 물적인 환경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으니 새 교실이며 새 책이며 새로운 학용품들을 접하며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새 마음은 잘하겠다는 마음인데 막연한 잘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여 잘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

시작할 때는 앞으로 진행될 일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계획과 물적인 준비물이다. 새 학년은 일 년간 계획이 필요하고 새 학기는 6개월간의 준비가 필

요한 것이다. 새 학년은 새로운 인적 물적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지만, 서로 만남으로 알게 되고 상호 간에 도움을 주면서 발전하며 살고 있다. 만남에는 기대가 따른다. 인적 만남의 기대는 새 학년이 되어 만나게 되는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과 만남이며 학생들은 새로 만난 친구들과 만남이다. 이 만남은 서로 자기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려 친근감이 길러져야 하는데 맨 먼저 할 일은 상호 간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을 해야 하며 이름 기억은 빠를수록 좋다.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충분히 해야 하며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사는 곳,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친구를 알아두면 쉽게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 한다. 이름표를 차는 것도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물적 환경과의 만남인데 새롭게 바뀐 학교 교실과 시설의 활용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선현 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익혀 가야 한다. 인적인 환경에서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인간관계와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며 물적인 환경은 부정적 환경으로 교장 난 것은 고치

고 바로잡고 없애야 한다.

새 학년 새 학기 새 출발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래포(rapport)가 형성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는 가정에서의 교권이 담임교사에게 전수되었음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는 친근감을 길러야 할 것이다. 새 학년 교육이 성공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 학년에서 담임교사는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우는 즐거운 교실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지식정보의 주입보다는 교과학습의 학습 방법을 알게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지도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달리기할 때 출발점 고르기를 하여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시킨다. 교육도 학생들의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여 학년 초부터 출발점 고르기를 철저히 하여 부진아가 생기지 않는 수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시작할 때 교육을 잘 수 있는 여건 조성 과 긍정적 생각이 꾸준한 행동으로 실천되어, 2022학년도 교육은 시행착오 없는 성공한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가정폭력과 학대예방!! '보라데이'로 실천해 보라(look again)

김주현 여수경찰서 행정관

최근 가정폭력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법적인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이 폭력과 방임으로 해체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진 범죄의 현장이 되어 버린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1만 8,669건이다. 수치적으로는 2년 전보다 9% 정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리두기와 비대면 일상화로 매 맞은 아기가 있어도, 학대당하는 부모가 있어도, 홀로

살던 누군가 죽어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 피해를 봐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수치로만 보고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가정폭력과 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이라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재발률도 높고 조기 발견 또한 어려워, 주변의 주의 깊은 관심이 있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매월 8일은 '보라데이'이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



로데이'는 많이 알고 있지만 '보라데이'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보라데이'는 여성가족부

에서 2014년부터 매월 8일,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만든 날이다.

가정폭력 목격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보라!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 없이 1366에 도움을 요청해 보라! '보라'는 '보다'의 영어표현인

'LOOK'의 'OO'모양처럼 매월 8일로 정하여, 모든 국민이 가정폭력에 대해 집안일이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눈을 크게 떠서 관심과 사랑으로 주변을 잘 살펴보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의미이다. (look again)

매월 8일이 되면 '보라데이'를 기억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생각해 보자.

누구든지 가정폭력과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가정폭력과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라데이'의 의미 있는 실천의 노력이 꽃길처럼 퍼져나가기를 소망해 본다.

칼럼

가장 안전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 국가·자치·수사경찰이 함께 가는 길

공일권 장흥경찰경무과 경감

얼마전 경기도에 거주하며 미수(米壽, 88세)를 앞둔 86세의 노인이 '장흥경찰 백년사'를 보내줄 수 있겠냐고 문의를 해오셨다.

1995년에 장흥 경찰서장을 역임했는데, 장흥 군민을 위해 열정을 바치던 젊은 시절이 그리고 보람차더라며 그 사랑의 대상인 '장흥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다고 하셨다.

'장엄한 인생의 막바지에 서서 고향 그리기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열정을 바친 젊음의 향수구나'며 장흥경찰로서의 오늘을 장래에 투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장흥경찰은 '가장 안전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안전'은 경찰만이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의 핵심 가치일 것이다.

안전이야말로 생명 재산과 직결되며 경제, 사회활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의 직무는 가슴 벅찬 수밖에 없다.

전국의 112 신고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800만~1,900만건에 달한다(출처 경찰백서) 한해동안 국민 5명중 2명이 112 신고를 한 격이다. 장흥 경찰의 지난해 112 신고는 6,467건에 달한다.

2022년 2월 현재 장흥군의 인구는 36,405명으로 (출처 장흥군) 군민 5.6명 당 1건의 112 신고를 한 셈이니 전국 통계와 얼추 들어맞는다고 할 것이다.

장흥경찰은 112 신고처리에 있어 '초동 대응력을 강화'코자 경찰서장이 직접 모든 사건을 관장중이며, 112 상황실 위주의 인력·장비 대응체계를 완비하였다.

현재 281개 각 마을마다 500여대의 자위방범 CCTV를 증설하는 것도 이 노력의 일환이다.

119나 장흥군 관제센터 CCTV등은



이러한 경찰의 노력을 배가시키는 믿을 수 있는 상승요인이기도 하다. 아울러 경찰 관련 재난 40종(자연재난 11종, 사회재난 29종, 출처 행안부 재난연감)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장흥군 내 현황을 분석, 대응훈련을 실시 중이며, 유관행정기관과의 종합적·체계적 감시망도 구축되어 있다.

모든 행정기관이나 기업은 '국민과 함께'하려 하고 기관·기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코자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영입의 결과는 '국민'과 함께하지 못했으며 다음해에는 또다른 새로운 시책들이 불뚱을 이룬다.

다변화된 사회속에서 직업의 수만 큼이나 다양한 국민에게, 특정의 기능만을 전담하는 어느 한 기관이나 기업이 다가서기에는 너무나 큰 제약이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치안은 사회 근간을 지지하는 받침대 일 수밖에 없으므로 끝없는 자기반성과 혁신을 통해 '알을 깨고 날아오르는 새'처럼 해마다 비약할 수밖에 없다.

장흥 경찰의 작금의 노력은 장흥경찰관 개개인이 희수가 되었을 때 기억하고 싶은 보람으로 다가올 것이다.

가치있는 젊음으로써, 한 사람의 자연인에게 주어진 의미로써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움'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앞서 언급한 노인(老人)의 경우처럼 오늘 우리들의 노력이 장흥경찰 100년사에 더해질 것을 확신하며 군민의 안전을 지향하는 국가·자치·수사경찰의 노력이 알차게 열매맺길 기원해본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맨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계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동북번호 청구가 00021 (원안)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